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감로해인

라이프사이언스에서 펴낸 <세계 5대 종교 역사도감>은 5대 종교를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유대교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조선 중기 천문학자(天文學教授)를 지낸 격암(格菴) 남사고 선생이 펴낸 <격암유록>에는 세계종교를 유불선(儒佛仙)의 삼도(三道)로 표현하고, 특히 선도(仙道)는 동선(東仙)과 서선(西仙)으로 나누고 있는데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담고 있는 동양의 선도와 사후천당을 믿는 서양의 선도이다. 20세기 말에 인내천 사상을 내세우는 동양의 선도(仙道)에서 도통하신 완성자가 나오셔서 감로이슬로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다.



이긴자의 눈에서 살마광선(殺魔光線)이 되는 감로이슬이 나오고 있다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로서

완전한 글자를 배우시는 생미륵불

격암유록 은비가에 “儒佛仙三各人出(유불선삼각인출) 未復合一聖一出(말복합일성일출) 즉 유교, 불교, 기독교에서는 말세에 인류를 구원할 주인공이 유불선에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출현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종교를 합일한 한 분의 성인이 마지막에 나오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유교에서는 구세진인(救世真人) 정도령을 기다리고 불교에서는 생미륵불을 기다리고 동선(東仙)은 상제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서선(西仙)은 메시아 강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감로이슬로 사람과 만물을 하나님(부처님)으로 변화되게 하여 온 우주를 천국으로 만드는 자가 곧 모든 종교단체에서 기다리던 동일한 주인공이기에, 그런즉 정도령이 곧 생미륵불이요, 생미륵불이 이긴자 구세주요, 구세주가 정도령으로 한 분의 주인공을 가리킨다. 은비가(隱秘歌)의 未復合一聖一出(말복합일성일출)에서 말복합일을 풀이하기를, 유불선의 삼교를 통합한다고 격암유록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한다. 그리하여 기존에 있는 유교의 사서삼

경과 불교의 팔만대장경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66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골라내어 설교하면서 자칭 정도령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석가 선생의 가르침을 모아 놓은 팔만대장경은 반쪽 글자에 불과하며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로서 완전한 글자를 배우시는 생미륵불이 오셔야 비로소 모든 중생들을 불생불멸의 부처님으로 성불하게 하여 살아 생전에 극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보살마하살의 출현 전까지의 모든 경전은 번뇌에 대한 책이므로 반쪽 진리만을 그려냈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착하지 못한 짓이라 하며, 이러한 행위를 글자 없는 뜻 따르는 것이라고 단정하신다. 그에 반해서 미래에 오실 보살마하살의 법은 선한 이치를 담은 것이며 완전한 해탈이므로 문자를 여의는 것이며 완전한 글이 되는 것이라고 설하신다(대반열반경8권 여래성품4-5.84쪽 해설).”

기독교의 복음서에도 마찬가지로 반쪽 진리를 온전치 못한 것으로 표현하며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슬도 내리지 못하면서 “내

가 광명한 새벽별(계22:16)의 이름을 가졌음으로써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부분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기에 메시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호세아 14장 5절에 이슬을 내리는 이스라엘(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긴자)이 백함화로 비유되는데, 그 백함화가 구세주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합동찬송가 88장 후렴에 또렷이 쓰여 있기 때문이다.

감로이슬은 하나님의 빛이요, 화우로 삼풍(三豊: 하늘나라 양식)이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해인(海印)이다

성경이나 불경에서는 이슬을 내리는 자가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공이라고 한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긴 이긴자에게 하나님은 이슬성신으로 임하셨다고 했다. 또 “주(하나님)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내어 주리라(이사야 26:19)”라고 기록된 구절대로 이슬의 실체는 하나님의 빛이요 지상에서 죽음을 없애버리는 전무후무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긴자 구세주의 두 눈에서 보라색의 광선이 나와 양에 걸린 사람을 낮게 하고 심장병과 간경화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낮게 하는데, 그 보라색의 광선이 하

나의 빛이요 이슬성신이기 때문이다. 불경에서도 “감로의 광명이 사람의 털구멍으로 들어가면 성불한다(열반경 9권 90페이지)”라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 감로를 내리는 자가 곧 생미륵불(生彌勒佛)이다.

격암유록에서는 감로이슬을 하늘의 곡식이 되는 화우로 삼풍(三豊)으로 묘사하고 또 해인(海印)으로 또는 불사약으로 묘사하고 있다(甘露如雨海印 火雨露三豊海印 / 有雲眞露不死藥 「말운론」). 그리고 해인은 착한 사람은 살리는 물건이나 악한 자는 죽여 지옥에 보는 물건이라고 한다(海印 善者生獲之物 惡者死獄之物 「은비가」). 감로해인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한다(甘露如雨海印 火雨露三豊海印 化學化學化學印 無所不能海印 「해인가」). 인생을 추수하는 심판일에 해인(海印)을 가지고 역사하니 능치 못함이 없고 감로해인에 의해서 '나리는 마귀 탈을 벗고 성령으로 거듭나게(重生) 되니 육신도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하는 자로 변화된다고 한다(人生秋收審判日 海印役事能不無 脫劫重生 變化身 「석정수」 / 死之征服永生者 脫劫重生修道 「말중운」)

하나님의 마음이 뭘지 알아야 영생

사람이 영생하려면 감로이슬을 받아야 하는데, 감로이슬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을 찾아서 들어간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은 인류를 하나로 만들기에 지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고 반부처별도 사라지게 한다. 사람이 부처님이 되려면 부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곧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긴자 구세주께서 값없이 인생들에게 알려주신다.* 백택기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56> “나라는 것이 원수 중의 원수이다”

나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원수 중의 원수가 나오, 마귀 중의 마귀가 바로 나인 것이다. 마귀가 어디 탄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바로 자신 속에 나라는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 있으면,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친척을 죽이고, 만민을 죽이는 원수 중의 원수

인 것이다. 육천 년 동안 하나님을 죽여 왔던 철천지원수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이 원수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돌로 쳐서 죽이는 심정으로 초초로 나라는 것을 죽이고 짓이겨야 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은 한 번 죽임으로 끝나는 그런 마귀가 아니다. 죽이면 또 되살아나고 되살아나는 고로 계속해서 죽이고 또 죽여야 하는 것이다.*

이기는 삶

언제 배움을 멈출 것인가?

승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전문가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 알고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패자는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알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전문가로 여겨주기를 바란다. 프로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연습하지 않는 축구선수 손흥민과 이강인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누구나 프로가 되어야 한다. 더구나 현대 지식사회에서는 1년 동안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지식의 80%는 감가 상각된다고 한다. 2500년 전 공자의 말씀인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면 불역열호(不亦說乎)’ 배우고 전생이 일어날 수 없고 반복하면 사라지게 한다. 사람이 부처님이 되려면 부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곧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긴자 구세주께서 값없이 인생들에게 알려주신다.* 백택기

의 마음을 다잡을 줄 아는 수양까지 겸하게 되니 그 사람의 겸손한 태도에 모두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게 된다.

란체스터 마케팅 전략에는 3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2등은 3배의 노력을 해야만 겨우 1등과 비슷해진다. 1등이라면 동일화 전략을 써야 하고 2등이 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구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 흔히 1등을 모방하고 따라하기 쉬운데 그러면 오히려 1등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2등 이하가 어떤 주장을 할 때, 1등이 그 주장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2등이 아니라 1등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1등 프리미엄이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1등이 아닌 모든 조직은 1등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찾아서 자기주장을 해야만 비로소 생존의 길이 보이는 것이다.

10년 안에 현존하는 기업의 40%는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앞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의 순위는 지금 가장 성공한 기업이다. 그들은 변화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를 하면 지금 당장 잃을 것이 보인다. 그러나 변화만이 생존 확률을 높여준다. 현재 이익을 고수하면서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성공의 달콤함을 스스로 버리고 미래의 이익을 위해 먼저 변화를 택할 것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조직의 피할 수 없는 화두이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며 내일은 오늘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어떠한 사업에서도 몰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따라서 어제의 성공법칙이 오늘도 통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격암유록 『桃符神人(도부신인)』편에서

倒山移海海印用事 任意之往來하며 無爲理化自然으로
도산이해해인용사 임의왕래래 무위이화자연
白髮老龜無用者가 仙風道骨更少年에
백발노구무용자 선풍도골경소년
二八青春妙한 態度 不老不衰永春化로 極樂長春一夢인가
이팔청춘묘한 태도 불로불쇠영춘화 극락장춘일몽
病人得體不具者가 北邙山川 閑臥人도
병입골수불구자 북망산천한와인
死者回春甦生하니 不可思議海印이세
사회춘순생 불가사의해인

산을 뒤집고 바다를 옮기는 해인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왕래하니, 매사에 애써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네. 백발에 늙은 몸으로 아무 쓸모없던 자가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을 갖추어 몸과 마음이 다시 젊은이로 변하네. 이팔청춘의 묘한 태도로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청춘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더운 여름도 추운 겨울도 없는 늘 선선한 봄 날씨만 있는 극락세계에서 사는 것이 꿈이런가! 죄 담담으로 골수에까지 병들은 불구자가 북망산천 공동묘지에 한가롭게 누워 있는 자로 되었을지라도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자가 다시 청춘으로 되살아나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해인의 권능일세.



진짜 구세주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구세주로 만드는 자 ④

이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일(1981년 12월 28일)에 다섯째 천사(영모님)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쇼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쇼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였고 같은 해 11월 2일에 “그 속에 죄의 뿌리가 지 빼주는 이긴자가 나왔으니 그를 통하여 하라는 모든 것에 순종하여 그 모든 죄의 뿌리까지 뽑히어서 그 아름다운 세계에 가는 인간만이 최고로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망권세를 잡은 공중신(空中神)의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는 세계정세를 좌지우지하기에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고 또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기에 기후변화에 의한 전 지구적 재앙 속에서도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고 한국으로 불어오는 태풍의 진로를 바꿔거나 소멸시켜 해마다 풍년 들게 한다.*